



Hello I am Sister Louise Grundish. I grew up in the Crafton Heights area of Pittsburgh and attended St. Philip School. My teachers were the Sisters of Charity and my memories of St Philip's school are rich ones. I was fortunate to attend Elizabeth Seton High School and once again the Sisters of Charity were my teachers. The sisters at Elizabeth Seton were unique and special.

They were inspirational teachers. Sister Mary Agnes Schildkamp, our principal,



was devoted to Elizabeth Seton and Elizabeth became a real influence in my life. When I started high school we were praying for Elizabeth Seton's canonization. It would be many years before I witnessed that exciting day.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I entered Pittsburgh Hospital School of Nursing and the first classes were held at Seton Hill College. Here I became more familiar with the sisters as I attended daily Mass with them and joined them for the afternoon rosary. The sisters witnessed such joy and peace for me that summer that I knew that I was called to that life. I left nursing school and entered September 8, 1951.



I returned to nursing school after my novitiate. After graduating from Pittsburgh Hospital I attended Duquesn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Most of my ministerial life was spent as a nurse and nurse educator. I also spent some years in vocation work and served on the Council. Now I am serving as the Community Archivist. I find this opportunity to learn more of our history and to tell some of our magnificent stories challenging and rewarding.

Life as a Sister of Charity has been an exciting journey for me. I entered before Vatican II and experienced many changes in religious life over the years. My life has been

enriched by women who share my values and have assisted me to grow in prayer, love, and service to God in ways I could never have imagined. I have experienced the joy of witnessing the Canonization of St. Elizabeth Seton, the founding of our mission (now Province) in South Korea, and so many events. When I entered the Community at age 18 I could never have imagined how life would unfold. The opportunity to travel to South Korea on three occasions and to participate in the 2012 IECM program have been highlights. The gifts of our unique cultures respected and joined in service of God's people is a rich inheritance.

May we grow together in love and prayer.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즈 그런디쉬 수녀라고 합니다. 고향은 피츠버그 크래프턴 하이츠이고 성 필립보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시절의 기억이 늘 최고의 추억으로 남았는데 사랑의 씨튼 수녀회 수녀님들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역시 저희 수녀님들을 다시 만나게 됐답니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수녀님들을 매우 특별한 분들이셨는데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지요. 특히 교장이셨던 메리 아그네스



월드캠프수녀님은 성녀 엘리사벳에 대한 신심이 각별하셨는데 수녀님을 통해서 저 역시 성녀 엘리사벳을 제 삶 깊숙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엘리사벳 씨튼의 시성을 위해 기도를 했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드디어 시성식을 볼 수 있게 되는 영광스런 날을 맞기도 했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 피츠버그병원 간호학교에 진학했는데 씨튼 힐 대학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 때 수녀님들과 함께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묵주기도도 바치곤 했습니다. 수녀님들은 무척 기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 해 여름 제 마음 안에서 수도성소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여름 날, 저는 간호학교를 그만두고 1951년 9월 8일 입회했어요.



수련기를 마친 후 다시 간호학교 과정을 마치고 듀케인 대학과 피츠버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직은 간호와 간호 교육이었습니다. 성소 담당과 관구이사직도 했는데 지금은 수도회 고문서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문서실에서 일하면서 수도회의 역사를 더 배우고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살아 온 제 삶은 그야말로 하나의 흥미진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입회해서 그 동안 수도생활의 수 많은 변화를 경험했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저는 수 많은 여성들과 저의

가치관과 삶을 공유하고 일찍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기도와 사랑 안에서 지지를 받아 성장하고 하느님께 봉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수도생활을 하면서 엘리사벳 씨튼의 시성과 한국 선교(현재 관구가 된) 그리고 그 외의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또한 큰 즐거움이었어요. 18살에 입회를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이러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한국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2012년 관구간 은사체험에 참석했던 일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데 있어 서로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선물이며 풍요로운 유산일 것 같아요. 사랑과 기도 안에서 두 관구가 계속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